

제13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결과 보고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는 '00년 ASEAN+3 정상회의에서의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증진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환황해권 경제·기술협력 강화를 위하여 '01년 이후 매년 한·중·일 3국이 번갈아 개최

- 13년 간 한국 1,302명·중국 1,600명·일본 1,879명 합계 4,781명 참가,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산학관 협력, 도시환경 개선, 철도·항만 복합물류, 전시회 개최, 산업단지개발, 공동연구, 인재육성 등 무역투자·산업기술교류·인재교류협력사업을 제안하고 시행

1. 제13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전체 개요

- 일시 : 2014. 11. 25(화)~28(금)
- 장소 :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 참석 : 한국·중국·일본(큐슈)의 정부, 경제단체,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438명 * 본회의 258명(한 78, 중 94, 일 86)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주일한국대사관, 지자체, 한일경제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무역협회, 한국산학연합회, KOTRA(후쿠오카), 경제단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127명

※ 환황해 지역 : 부산·인천·광주·대전광역시, 경기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4시 7도)

【중국】 상무부, 지방정부, 경제단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94명

※ 환황해 지역 : 산둥성·랴오닝성·허베이성·장쑤성, 베이징시·톈진시·상하이시 (4성 3시)

【일본】 큐슈경제산업국, 지자체, 큐슈경제연합회, 큐슈경제국제화추진기구,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217명

※ 환황해 지역 : 후쿠오카·사가·나가사키·오이타·구마모토·미야자키·가고시마현, (7현 3정령시) 후쿠오카·기타큐슈·구마모토시

○ 주최 및 주관

구분	주최	주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한일경제협회·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중국	상무부 아주사	상무부 아주사
일본	경제산업성 큐슈경제산업국	큐슈경제연합회·큐슈경제국제화추진기구

○ 제13회 환황해 회의 테마

「환경·에너지·관광을 통한 환황해지역의 새로운 경제교류 모델 구축」

2. 회의 주요성과

- 한중일 삼국 간 무역 의존도가 높아지고 산업적으로 밀접해지는 상황 하에서 3국의 성장잠재력을 높여 상호번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환황해 지역의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환경·에너지·관광분야에서의 산학관 협력과 인재 육성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 강화에 합의
- 우리 청년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인력 일본기업 취업 지원 계획을 홍보하고, 일본 큐슈글로벌산업인재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니즈에 맞는 글로벌 산업인재 매칭사업과 연계
- 금번 회의시 「한중일 무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정비」, 「환황해 경제교류 대상의 창설」, 「한중일 화학 에너지·환경보호 분야의 협력」 등 한중일 지역교류 확대를 위한 3국 상호협력·제안사항으로서 총 6개의 협력사항을 제안

구분	제 안 내 용
한국	① 유럽연합 통합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주는 시사점 - 유럽공동체가 추진한 회원국 전원합의 접근법을 모델로 활용, 동북아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제통합을 추진 - 한중일 산업구조 협의회 구성으로 상호경쟁에서 협력체제로 전환 - 동북아 에라스무스(학점), 소크라테스(공동연구) 프로그램 구축 ② 한중일 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정비 - 자유로운 거래 시스템 구축
일본	①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경제교류 대상의 창설 ② 큐슈의 관광전략
중국	①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전략을 의지하여 한중일 지방경제협력 시범구의 건설 추진 ② 다롄창싱섬 경제구의 석유화학공업산업지대 건설과 한중일 3국의 화학공업·에너지·환경보호 분야 협력 추진

- 환황해 회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3국 정부대표자 회의에서는, 환황해지역 경제발전방안 공동연구 실시, 환황해회의 공헌 표창제도의 실시, 지방간 경제파트너십 관계 구축과 중점프로젝트 추진, 지역경제 재생과 지역산업 육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구분	제안내용
한국	① 환황해 지역 경제발전 방안 공동연구 실시 ② 환황해 회의 후속조치 시행을 위한 한중일 협력사무국 활용 ③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간 협력 강화 - 시도간 협력사업 16개 및 주력사업 63개와 연계협력
중국	① 지방간 경제파트너십 관계의 구축 ② 지역내 중점프로젝트의 추진 ③ 중국 경제정세와 대외개방 정책 소개
일본	① 환황해회의 경제교류 대상(大賞)의 창설 ② 글로벌 인재협력 ③ 인구감소하의 지역경제 재생과 지방성장산업 전략 - 큐슈의 4대 성장전략(청정분야, 의료·헬스케어·코스메틱분야, 농림수산업·식품분야, 관광분야)과 연계협력

- 2013년도 제12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3국 국장회의의 후속 조치로 실시된 '역내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중일 3국 공동연구 의견교환회'에서는 각국의 정부와 연구기관 및 관계자가 모여, 연구희망 테마와 조사 방법, 결과물 도출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상호 데이터 제공 등 공동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구분	각국 연구 내용	연구결과 취합
한국	한중일 환황해 지역 발전방안 제시 -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3국의 지역 주력산업 분포 조사 - 무역·투자·기술·인력교류 조사 - 수요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결과 보고서는 각국에서 조사 결과를 각각 작성하여 그 내용을 취합하고 액션플랜은 공동으로 단기·중기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 (중국측은 장기적 로드맵 포함 희망) 2015년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제14회 회의에서 결과보고
중국	한중일 협력→동아시아 경제협력 로드맵 제시 - 환황해 회의의 역할 제고 - 산업협력 외에도 제도화, 규격화, 매커니즘 연구 희망, 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중일 협력 방안을 제시 · 거시적 목표 : 환황해 로드맵 작성, 장기적 발전 비전 제시 · 중기적 목표 : 산업협력방안 제시 · 단기적 목표 : 중점 지역 선정, 환황해 시범지구 타당성 조사 - 비즈니스 환경에 기초하여 한중일 산업협력 추진 및 저해요소 해결	
일본	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중일 협력방안 제시 - 테마를 좁혀서 연구 희망 - 재생에너지 보급, 산업화 (태양광, 풍력, 지열, 수소에너지 등)	

- 연계 행사로 개최된 「환황해 비즈니스 포럼」 및 「환황해 총장 포럼」, 「환황해 글로벌 인재 포럼」, 「환황해 트라이앵글 관광포럼」에서는 환경·에너지·관광 등을 통한 환황해 지역의 새로운 경제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 포럼 주요논의 내용

구분	제안내용
환황해 비즈니스 포럼 「환경·에너지 분야의 비즈니스교류 촉진」	<p>한중일 3국을 둘러싼 환경현안에 대해 한중일 환경협력 파트너십 구축과 환경기술, 산업협력으로 동북아 환경 문제 개선을 제안</p> <p>□ 기초강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 기후/대기/수질오염방지 R&D 추진 현황과 환경산업 육성 및 기술협력 사례 소개 - 중국 : 새로운 동북진흥계획을 통해 라오닝성의 교류 기회 확대, 외자투자 유치 희망 및 한중일 순환 경제 모델기지 건설 추진 - 일본 : 교와기전공업의 수처리 플랜트 시설 해외전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지화 - 현지에 맞는 인력, 물자, 기술, 자본 등 2) 한중일 대학연계로 수처리 환경 기술자 육성 3) 특허협력조약 출원 및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지적 재산권 존중 <p>□ 협력사례 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 해외 자원에너지 개발 등 컨소시엄 협력 동아시아 대기오염 협력 프레임워크 → 3국 핵심 중핵 플레이어 융합 모델 구체화 및 가스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와 협력체계 필요 - 중국 : 허베이는 경제와 산업, 농업, 자원, 문화에 강점을 갖고 있는 지역이며 한일의 투자 활발한·중(엔칭)에코산업 파크 건설 구상 - 일본 : 지리적 이점을 통해 예로부터 한·중과 교류 부산시와의 교류협정, 중국 푸젠성과의 환경 기술교류 협정 체결을 통해 관광, 청소년, 문화교류→트라이앵글 교류로 연결 희망

구분	제 안 내 용
	<p>□ 비즈니스 교류회(쇼트 프레젠테이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기압축기의 대기·기계·수질·토양 오염과 근로자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유증기 처리장치 결합형 공기압축기 소개 ② 매립장 폐기물을 선별하여 재활용 및 에너지화하는 기술 ③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개도국 상생 협력사업 및 녹색적정기술 발굴 및 교육 - 중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베이징 텐주 종합고세구역 소개 ② 상하이 국제조달센터 전시회 소개 및 국제 조달 플랫폼 구축 및 업무제휴 희망 ③ 해외 기업·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국제화, 설계의 표준화, 생산의 공장화, 관리의 정보화, 내장의 일체화, 시공의 조립화를 통해 건설업의 발전 도모 ④ 한중일 3국 협력을 통해 중국 장베이에 최초의 LED 조명산업구 구축 희망 ⑤ 푸완신구 소개 - 일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에너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술개발(터보 기계) 사례 소개 ② 전기 에너지 사용 효율 향상과 저비용화를 위한 소형(고효율, 저가격, 충전시간 단축), 고성능화 전원장치 개발사례
<p>환황해 총장 포럼</p> <p>「환경·에너지·관광 분야의 인재개발」</p>	<p>□ 환황해 연안 지역에서의 인적 자원 개발 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황해지역의 대학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환경, 에너지 및 관광 분야의 인재의 육성 등에 대하여 연구성과 발표 및 의견 교환 실시 ○ 환황해회의 총장포럼 개편 관련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부족으로 기관 및 기업 등의 도움 필요 - 한국측은 교육부의 지원과 한중일 3국 대학교간 MOU 체결 희망 - 각국의 간사를 선정 후 서로 연락하여 내년 총장 포럼 준비

구분	제 안 내 용
<p>글로벌 인재 포럼</p> <p>「환황해지역 글로벌 인재 인턴십 활용」</p>	<p>□ 큐슈글로벌산업인재협의회에서 큐슈기업의 해외사업 전개 등을 인력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니즈에 맞는 글로벌 산업인재를 전략적으로 육성</p> <p>○ 한국·중국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유학생의 채용이나 해외사업 전개에 대해 적극적인 큐슈기업에서 인재활용사례 등에 대해 강연, 요구되는 글로벌 인재상에 대해 의견 교환</p>
<p>트라이앵글 관광 포럼</p> <p>「환황해지역 역내외 교류인구 증대 모델 구축」</p>	<p>□ 세계 관광수요의 유치와 한중일 간 상호 문화이해의 촉진을 위하여 3국이 상호 협력하고 수용 환경의 정비 및 여행기획, 공동 프로모션 등에 협력</p> <p>○ 기조강연 : 하우스텐보스 재생과 관광교류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nly 1, No 1’ 전략을 통해 하우스텐보스의 적자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과정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깨끗하고 밝게(청소 실시 및 직원태도 개선) ② 20% 경비 절감, 20% 매출증대 노력 ③ 지역의 장점 활용 : 지역 특색 강조 (백만개 톨립, 천백만개 전구의 일루미네이션 등) <p>○ 3국 관광 프로모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 세계문화유산, 한류, 음식, 의료관광 등 한국의 관광자원 소개 - 중국 : 관광소비국으로서의 중국의 위상과 한중일 지역교류 확대 가능성 제시 - 일본 : 관광자원과 교통편리성, 일본내 기관간 효율적 연계를 통한 관광진흥 전략

3. 평가

- 성장 잠재력에 비해 지금 한중일 3국 간의 교류는 그렇게 활발하지만은 않은 상황으로, 동아시아가 세계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한중일이 더욱 협력적인 관계로 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 한중일 세 나라는 2013년 기준으로, 전세계 GDP의 21%(16조 달러)와 교역량의 18%(6.8조 달러), 세계인구의 20%(15억 명)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경제에서의 비중과 역할이 매우 큰 편임

- 한중일 삼국의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기술·인재 등의 지역 자원을 상호 보완하여 무역·투자·산업기술교류확대와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하는데 기여
 - 실제로 한중일 3국간 역내교역량은 첫 회의가 개최된 2001년 1,638억불 규모에서 2013년 6,356억불 규모로 4배 가까이 성장해 왔음
- 이번 회의는 제22차 APEC 정상회의, 제17차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연달아 개최된 직후 개최되는 3국 국장급 회의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시기적으로도 본회의가 갖는 의의는 다대함
 - 환황해 공로자 표창제도 시행, 환황해 역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3국 공동연구, 지역 산업 육성 정책 공유, 인재교류 활성화 등에 합의
- ‘한중일 환황해지역의 새로운 경제교류 모델 구축’을 테마로 하여 ‘환황해 비즈니스 포럼’ ‘환황해 산학관 연계 총장 포럼’ ‘환황해 글로벌 인재포럼’ ‘환황해 트라이앵글 관광포럼’ 등 4개 포럼을 병행 개최함으로써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기반을 마련에 기여

4. 후속조치 및 향후 추진계획

- (피드백 체계 구축) 동 경제기술교류회의의 피드백을 위해, 본 회의에서 도출된 협력방안에 대해 후속조치(Follow-up) 실시
 - 3국 실무자간 연중 네트워크 구축
 - * 3국 간 회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 협의
 - * 보다 실질적인 협력 추진을 위해 한중일 삼국협력사무국과 협력하여, 향후 예산 지원 등 서로 필요한 협의와 조정을 실시하는 등 후속조치(Follow-up) 강화와 합의사항 점검
 - 피드백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구성, 동 교류회의 발전방안을 마련, 차기 회의 준비
 - * 제14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제22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를 부산광역시에서 동시개최

- *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테마를 선정하여 차기회의 개최 검토
- * 한국산학연합협회가 추진하는 산학융합마을(20개 기업유치)사업 연계 등

□ (3국 공통과제 논의)

- 사업의 성과도출을 위해 3국이 공통된 주제에 대해 발표, 논의

5. 보도자료

연합뉴스

동북아 경제통합 세부과제, 한중일 국장급 채널 논의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이라는 커다란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한중일 3국의 정부 대표가 국장급 회의를 열고 경제 협력 과제를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상무부, 일본 규슈경제산업성과 함께 25일부터 나흘간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제13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와 '제21회 한일 경제교류회의'를 잇따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최근 급진전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통합 이슈에 관한 세부 실천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소개했다.

회의 기간에 3국 정부 대표는 국장급 회의를 열고 산업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와 지역 산업 육성 정책, 인재 교류, 공로자 표창 제도 등에 관해 논의한다. 우리나라에선 이상진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이 참가한다.

일본과는 미래지향적인 산업협력 비전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와 의료, 신재생에너지 등과 관련을 맺고 있는 소재부품 분야에서 양국간 산업집적단지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청년 인력의 일본 진출 촉진 방안 등도 다룬다.

아울러 한일 양국간 산업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기업 46개사가 일본 규슈 지역 기업과 구매 상담을 벌이는 행사가 함께 열린다.

한·중·일 환황해 지역 경제협력방안 논의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11월25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일본 큐슈경제산업성 공동주최로 ‘제13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와 ‘제21회 한·일(큐슈) 경제교류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제22차 APEC 정상회의, 제17차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연달아 개최된 직후 개최되는 3국 국장급 회의로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형성을 구체화하는 의미를 갖으며, 한·중 FTA타결 및 한·중·일 FTA, RCEP, TPP 논의 등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동북아 역내통합이라는 거대담론의 세부실천과제를 점검·논의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번 회의 기간 중에 3국 정부대표는 3국 국장회의를 열어 3국지역 간 산업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 지역 산업 육성 정책, 인재교류, 공로자 표창제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며, 한·일 (큐슈) 경제교류회의에서는 미래지향적 한·일 산업협력을 위한 거시비전과 더불어 첨단 소재부품 분야(자동차, 의료, 신재생에너지 등)의 한·일 산업클러스터 구축 방안, 한국 청년 산업인력의 일본 진출 촉진 등 구체적인 경험과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회의의 부대행사로 ‘한중일 환황해지역의 새로운 경제교류 모델 구축’을 테마로 해 ‘환황해 비즈니스 포럼’, ‘환황해 산학관 연계 총장 포럼’, ‘환황해 글로벌 인재포럼’, ‘환황해 트라이 앵글 관광포럼’ 등 4개 포럼이 병행 개최되며 한일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교류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비즈니스 상담회’도 병행 개최돼 한국 측에서는 46개사가 참가해 일본 큐슈측 기업과의 1:1 비즈니스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중·일 산업당국 한데모여 역내 통합 세부과제 논의

[3국 25일부터 나흘간 日에서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한국과 중국, 일본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동북아 역내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부터 나흘간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중국 상무부, 일본 규슈경제산업성과 공동으로 '제13회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회의는 한국 서남해안 지역과 중국 환황해 지역 3시·4성, 일본 규슈 지역 7현·3정령시와의 경제교류를 통해 3국간 무역·투자·산업기술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1년 제1회 회의가 열린 뒤 매년 3국이 번갈아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하지만 올해 회의는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제17차 아세안+3 정상회의가 개최된 직후 열리는 3국의 국장급 회의라는 측면에서 예년보다 의미가 더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회의 주제는 환경·에너지·관광을 통한 '환황해 지역의 새로운 경제교류 모델 구축'이다. 회의 기간 중 3국은 국장회의를 갖고 산업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 지역산업 육성정책, 인재 교류, 공로자 표창제도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데 이어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의 논의가 최근 급진전되고 있다"며 "동북아 역내 통합이라는 거대담론의 세부 실천과제를 점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기간에는 '제21회 한·규슈 경제교류회의'도 열린다. 한·규슈 경제교류회의는 지난 1992년 일본 기타큐슈시에서 '코리아 페스타(한국 우량제품전시상담회)'가 개최된 것을 계기로 이듬해인 1993년 제1회 한·규슈 경제교류회의'를 열면서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25,26일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에서 열리게 된다. 자동차, 의료,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 소재 부품분야의 한·일 산업클러스터 구축방안, 한국 청년 산업인력의 일본 진출 촉진 등의 경험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중·일, 환황해 지역...경제협력방안 논의

(과천=국제뉴스) 김두호 기자 = 오는 25일부터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일본 큐슈경제산업성 공동주최로 '제13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와 '제21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제22차 APEC 정상회의, 제17차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연달아 개최된 직후 개최되는 3국 국장급 회의로,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형성을 구체화하는 의미를 갖으며 한·중 FTA타결 및 한·중·일 FTA, RCEP, TPP 논의 등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동북아 역내통합이라는 거대담론의 세부실천과제를 점검·논의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번 회의 기간 중에 3국 정부대표는 3국 국장회의를 열어 3국지역 간 산업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 지역 산업 육성 정책, 인재교류, 공로자 표창제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어, 한·일 (큐슈)경제교류회의에서는 미래지향적 한·일 산업협력을 위한 거시비전과 더불어 첨단 소재부품 분야(자동차, 의료, 신재생에너지 등)의 한·일 산업클러스터 구축 방안, 한국 청년 산업인력의 일본 진출 촉진 등 구체적 경험과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회의의 부대행사로 '한중일 환황해지역의 새로운 경제교류 모델 구축'을 테마로 하여 '환황해 비즈니스 포럼', '환황해 산학관 연계 총장 포럼', '환황해 글로벌 인재포럼' 등을 실시한다.

또 환황해 트라이 앵글 관광포럼 등 4개 포럼이 병행 개최되며 한일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교류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비즈니스 상담회'도 병행 개최되어, 한국 측에서는 46개사가 참가하여 일본 큐슈측 기업과의 1:1 비즈니스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중일, 3국 경제협력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과 중국, 일본의 경제 관계자들이 오는 11월 3국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는 한중일 삼국 정부, 지자체, 경제단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하는 '제13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와 한일 양자간 협력체인 '제21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가 오는 11월 25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일본 나가사키시에서 동시 개최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열리는 회의에서는 '환경·신재생에너지·관광분야 협력을 통한 새로운 환황해 지역의 경제교류 모델 구축'을 테마로 해 '환황해 비즈니스 포럼' '환황해 산학관 연계 총장 포럼' '글로벌 인재포럼' '트라이앵글 관광포럼' 등의 각종포럼과 비즈니스 상담회가 병행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는 한중일 환황해권 경제교류 확대를 통해 3국간 무역·투자·산업기술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동북아시아 자유무역권 구상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된 정기적인 협력채널이다.

또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는 한국과 일본 큐슈(九州) 지역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기술·인재 등의 지역자원을 상호 보완해 무역·투자·산업기술교류 확대와 지역간 교류를 촉진하고자 지난 1993년 상공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큐슈경제산업국 간의 정기적인 경제협력 채널로 시작됐다.

회의 주관기관인 한일경제협회 관계자는 "한중일 삼국 간 무역 의존도가 심화되고 산업적으로 밀접해지는 상황 하에서, 세계경제의 약 1/5 (인구 22%, GDP 20%)을 차지하는 한중일이 더욱 공고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동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성장축으로써 기능해 나가기 위해 시기적으로도 이번 회의가 갖는 의의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지난 5일과 6일 이틀 간에 걸쳐 11월 회의개최를 위한 3국 정부·민간 관계자 실무협의를 열었으며, 환황해 지역의 발전을 위한 3국 공동연구 실시, 환황해 지역 비즈니스 공헌자 표창 제도 등에 대한 구체화 방안이 논의됐다.

한·중·일,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 착수

한국·중국·일본 3국이 모여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28일까지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중국 상무부, 일본 큐슈경제산업성과 ‘제13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와 ‘제21회 한일(큐슈) 경제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타결,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동북아 역내통합이라는 담론을 형성할 예정이다.

국장급 회의를 통해 3국은 지역 간 산업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 지역 산업 육성 정책, 인재교류, 공로자 표창제도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다.

일본과는 한·일 산업협력력을 위한 거시비전과 자동차, 의료 등 첨단 소재부품 분야의 산업클러스터 구축 방안, 한국 청년 산업인력 일본 진출 촉진 등 경협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아울러 ‘환황해 비즈니스 포럼’, ‘환황해 산학관 연계 총장 포럼’, ‘환황해 글로벌 인재포럼’, ‘환황해 트라이앵글 관광포럼’ 등 4개 포럼이 부대행사로 열린다. ‘한·일 비즈니스 상담회’도 개최돼 일본 큐슈측 기업과의 1: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다. 우리 측에서는 46개사(社)가 참가한다.

大手8社76万台 増税後落ち込み最大

自動車大手8社が27日発表した10月の国内の自動車生産台数は、前年同月比7.0%減の76万6782台で、4か月連続で前年を下回った。4月の消費税増税後、最大の落ち込みだった。8月中6社が前年割れだった。三菱自動車は24.4%減と、昨年6月に発売した軽自動車の新車効果が薄れたことが影響した。

企業秘密漏えい 罰則強化

経産省方針 未遂罪新設 罰金引き上げ

経済産業省は27日、企業の製造ノウハウや技術などの「営業秘密」の漏えいを防ぐため、営業秘密を盗むことを禁じた不正競争防止法の罰則を強化する方針を発表した。営業秘密を盗むことに失敗しても未遂罪を新設して処罰の対象にするほか、罰金刑の上限額を現行の1000万円以下から引き上げる。

非親告罪 独自捜査可能に

同日の有識者会議「営業秘密の保護・活用に関する小委員会」で方針を示した。近く最終案をまとめ、来年の通常国会での法改正を目指す。

現行では営業秘密を盗んだり、不正に利用したりした場合に限って処罰される。改正後は、未遂も対象にすることで、漏えい防止

5社が前年を下回った。1年間の影響は依然続いていて「トヨタ広報」など、各社とも回復の遅れを指摘している。販売増の3社のうち、マツダは全面改良した小型車「デミオ」が好調で、4月以降で初のプラスになった。

改正後

罰金の上限額引き上げ

未遂でも処罰

告訴なしで起訴できる非親告罪に

訴えられた企業側が利用していないことを証明

現行

営業秘密侵害罪の罰則は「10年以下の懲役または1000万円以下の罰金」

営業秘密を盗んだ場合のみ処罰

起訴には被害者による告訴が必要

営業秘密を利用されたと訴えた企業側が被害を証明

不正競争防止法改正のポイント

起訴すなど、日本企業の営業秘密が海外のライバル企業に持ち出された疑惑が後を絶たない。政府が6月にまとめた成長戦略「日本再興戦略」では、営業秘密の保護強化を掲げている。

通商部によると、ナオミは業界首位だ。

一方、戸建ては、1995年に福岡県前原市(現糸島市)の「美咲が丘」(約760戸)の販売を始め、90年代は大型物件を分譲した。

9月に販売を始めた「ジェイフォレスト古賀・新宮」は、電線の下地化や事前の区画ごとに植樹するなど景観や緑化に配慮し、マンションのような管理組合も設けた。今後の大型開発のモデルと位置づけ、「ジェイフォレスト」の統一名称でブランド化を図る考えだ。

JR九州住宅の松尾純一社長は「鹿児島線沿線でも宅地開発の余地はある。ジェイフォレストの名称を浸透させ、販売を強化していきたい」としている。



9月に分譲を開始した「ジェイフォレスト古賀・新宮」

赤字からの再生 HTB社長語る

九州と中国、韓国の産業振興や観光交流を図る「環境経済・技術交流会」が27日、長崎県佐世保市のハウステンボス(HTB)内のホテルで開かれた。HTBの沢田秀雄社長が基調講演し、赤字体質だったHTBの再生の秘訣を語った。

沢田社長は「駄目な会社ほど、オフィスが汚く社員に元気がない」と切り出し、

2010年に経営に参画した際、朝の10時15分を清掃に充てたり、失敗した時こそ元気に笑うように従業員に呼びかけたりして、意識改革につなげたという。

経費を2割削減するだけでなく、2割の増収を目指し、世界最大級のイルミネーションショーなど新たな魅力作りにも挑戦し、入場客の増加につなげた経験を披露した。「何でもいいので、ほかにできないことや、ナンバーワンのもので作る」ことが大事だと指摘した。

統廃合で閉校した熊本県荒尾市
の市立小中学校が、この11月、
「フューチャースクール」

動

おり、情報・通信機器開発なども
展開している。資本金3億円で、2

廃校跡でソフト開発

九電によると、奄美大島

九電によると、奄美大島

九電によると、奄美大島

九電によると、奄美大島

九州電力は27日、鹿児島
県の奄美大島、喜界島、甕
島の3離島で、再生可能エ
ネルギーの固定価格買取取
り制度に基づく契約申し込み
量が接続可能量の目安に
近づいているとして、各島
の状況を公表した。申し込み
量が目安を超えれば、新
規契約を中断する。

九電によると、奄美大島
九電によると、奄美大島
九電によると、奄美大島
九電によると、奄美大島

奄美、喜界、甕も中断へ 九電 離島の再生エネ新規契約

九電は再生エネの急増で
電力供給が不安定化する恐
れがあるとして、7月から
長崎県の吉岐など6離島で
新規契約を中断。9月から
は九州本土全域でも住宅用
を除いて中断に踏み切って
いる。

九州経済

ファクス 092 (711) 6249 x-ルkeizai@nishinippon

フューチャースクールの転入価格に
金を連動させる原燃料費調整
制度に基づき、来年1月分の
電気、ガス料金を発表した。
石炭やLNGの価格が上がっ
たため、両社とも前月より値
上げする。
電気料金はモデル家庭(月
3000円使用)で前月比15
円増の7501円となり、7
カ月ぶりの値上げ。ガス料
金はモデル家庭(月23立方使
用)で24円増の6440円で、
8カ月ぶりの値上げ。

資生堂(東京)
魚谷 雅彦社長

ひと
に何が課題なのか、何に取り
組めば良いのか、共有でき
きたと手応えも感じている。
研究開発から営業や販売ま
まで一貫した

全社「イチガン」で

24日には、福岡市・天神で
の化粧品の新商品PRイベン
トに足を運び、社員や販売店
担当者など約30人を鼓舞し
た。「福岡は新しいことを受
け入れやすい反面、お客さま
の目は厳しい。今後も『良か
った、使い続けよう』と思っ
てもらえる商品開発に力を入
れる」

「ボーナス支給増」最多更新

西日本シティ銀行(福岡市) なり2年連続で過去最多を更新
は27日、福岡県内の主婦50 新。「減る」と答えた人は過
半数を占めた。今年冬のボナ 去夏氏10・6%の伸びま

地域貢献企業の
表彰制度新設へ
環境海会議が開幕
九州と中国、韓国の産学
官が経済交流拡大などに
いて意見を交わす「環境海
経済・技術交流会議」(九
州経済国際化推進機構など
主催)は最終日の27日、長
崎県佐世保市で本会議を開
催。日本側から、環境海地
域の発展や経済交流に貢献
した企業や団体、自治体を
3国で表彰する制度の新設
などを提案し、閉幕した。
表彰制度について、九州

経済産業局の柴田俊一国際
化調整企画官は「努力を重
ねている多くの企業や団体
の意欲を高め、環境海地域
の発展につながる」と述べ、
連携を求めた。
韓日経済協会の李鍾允副
会長は「3国で経済共同研
究に取り組もう。東アジア
地域は大きな潜在力を持っ
ている。世界を動かせる枠
組みをつくらう」と提案。
中国商務省アジア局の宋耀
明副局長は「省エネや環境
対策など重点分野で新たな
経済協力を進めていくた
い」と訴えた。同機構の麻

電化区間の直方・折尾間

本座 京 倫 22 社 かが ぬ 申 の



九州と中国、韓国の産官学関係者が貿易や技術交流の拡大について話し合う「環黄海経済・技術交流会」の本会議が27日、佐世保市で開かれた。日本と中国、韓国の外交が振るわない中、経済レベルで人材や技術開発などの交流促進を強化する方針を確認した。

九州経済産業局の岸本吉生局長はあいさつで、環黄海地域を枠組みにした3カ国の総人口は約4億人を超える市場とし、観光や技術の交流で同会議が「東アジアにおける経済発展のプラットフォーム」としての役割が期待される」と強調した。

九州と中国

人材、技術連携強化

佐世保で環黄海交流会議

今後の経済連携に向けた方策が話し合われ、日本側は、経済交流へ貢献した自治体や企業などを表彰する「経済交流大賞」制度の設立を提案。韓国側は「自国と他国の間で制度的差別も存在している」として、通商制度などの環境整備を求めた。中国側は3国間の経済モデルパーク建設推進を呼び掛けた。

会議は3カ国の持ち回りで2001年から開催。12年は沖縄県・尖閣諸島問題に伴う日中関係悪化を受けて中断したが、昨年から再開。今回は、3国間の貿易・投資・科学技術交流・教育・人材協力の促進を共通テーマに、フォーラ

ムやビジネス交流会を開き約560人が参加した。来年は韓国・釜山市で開催する。

(内野大司)

電気15円ガス24円
来月1月に値上げ
九電と西部ガス

12月分と比べると、電気は標準的な家庭(30㎡、月300kWh使用)で15円高い7501円。ガスは標準的な家庭(月23立方メートル)で24円高い6440円となる。算定基準となる8、10月の液化天然ガス(LNG)の輸入価格が上昇したための措置という。

(森田尚子)

経済がわの国

▼販路開拓・マーケティングセミナー 県産業振興財団が12月3日午後3時半〜5時半、長崎市出島町の出島交流センターで開く。経営コンサルタントの安永誠太郎氏、通販

○COOL 学園都市化推進事業記念講演会 東長崎商工会と長崎総合科学大が12月24日午後6〜8時、長崎市網場町の同大グリーンヒルキヤンパス本館第4講義室で開く。2009年に種子島宇宙センターで打

世保		諫早		諫早大同		県央大村		島原		入荷量		東京(大田)		大田		坂		
野菜	果実	野菜	果実	野菜	果実	野菜	果実	野菜	果実	ダンニキ	コシベ	野菜	果実	野菜	果実	野菜	果実	
55	29	16	5	36	13	40	15	13	2	1610	1245	904	450	12	864	12	864	
54	11	76	22	76	11	55	10	50	5	10	686	10	686	10	1296	10	1188	
130	86	108	11	108	22	108	22	108	22	10	1080	10	1080	10	972	10	918	
080	320	432	540	864	324	700	300	700	300	10	1188	10	1188	10	3240	10	3240	
405	189	1620	540	1620	540	1800	500	1800	500	4	2052	4	1620	4	1620	4	1620	
302	108	1944	540	1728	756	1800	500	1650	800	5	3024	5	2160	5	2376	5	2376	
140	54	P	140	76	P	113	22	90	50	0.1	140	0.1	167	0.1	167	0.1	167	
108	54	P	140	76	P	113	22	90	50	0.1	140	0.1	167	0.1	167	0.1	167	
86	43	箱	648	216	箱	540	216	箱	500	100	0.15	1836	0.15	1620	0.15	1404	0.15	1404
324	216	袋	259	16	箱	270	108	箱	300	50	0.15	3024	0.15	756	0.15	4104	0.15	4104
65	43	袋	70	54	袋	76	22	袋	60	40	0.15	43	0.15	32	0.15	65	0.15	65
292	248	箱	3078	2160	箱	324	216	東	2900	2300	青森	710	2160	10260	4	1620	1296	3240
130	14	箱	86	43	東	86	32	東	80	30	群馬	15	1080	86	324	486	2160	
50	14	箱	756	108	東	540	216	東	600	200	茨城	0.2	756	324	4	486	378	378
203	81	箱	1620	324	箱	135	54	箱	70	10	長崎	5	4320	2376	6	1620	2354	2354
179	32	箱	3078	1944	箱	2160	1944	箱	2500	1300	福岡	10	3780	7.5	3024	13	3240	
151	32	箱	194	324	箱	108	22	箱	170	10	長崎	10	1620	378	5940	10	1080	
216	65	箱	1296	324	箱	918	756	箱	1300	500	千葉	10	5400	10	27540	10	7560	
175	473	箱	3240	1404	箱	1269	1215	箱	3300	2200	長野	10	5400	10	5940	10	1944	
121	313	箱	4644	2592	箱	3348	2160	箱										
浜		有明		有明		加津		野田		入荷量		福岡		北九州		九州		
野菜	果実	野菜	果実	野菜	果実	野菜	果実	野菜	果実	ダンニキ	コシベ	野菜	果実	野菜	果実	野菜	果実	
2	0.5	12	5	5	27	5	27	4	2	828	177	402	97	10	864	10	216	
40	15	43	11	71	27	70	60	54	11	各地	756	54	10	864	10	756		
150	150	108	32	864	486	110	80	184	65	各地	1404	108	10	1080	10	1080		
250	30	57	11	432	324	60	50	54	11	各地	1404	324	10	864	10	216		
30	30	36	32	76	432	60	30	1720	648	各地	4	864	4	1728	4	432		
100	500	1380	648	1458	1512	1700	900	38	11	各地	5	1944	5	1998	5	810		
95	70	P	108	76	P	76	76	86	65	各地	0.1	270	0.1	184	0.1	108		
10	30	P	148	32	P	1296	432	130	70	各地	0.1	1620	0.1	1512	0.1	864		
10	30	箱	97	68	箱	2052	648	100	70	各地	0.1	2484	0.1	1836	0.1	1620		
100	150	箱	216	108	箱	432	270	600	200	各地	0.15	1944	0.15	1458	0.15	162		
50	30	箱	355	128	箱	1296	1188	65	45	各地	0.15	49	0.13	43	0.13	16		
50	30	箱	324	108	箱	540	324	250	200	茨城	10	2484	864	0.2	301	0.2	183	
60	50	箱	432	108	箱	540	324	150	120	各地	86	32	0.2	97	0.2	32		
50	300	箱	324	108	箱	540	324	700	600	各地	15	756	324	15	1404	15	108	
50	30	箱	76	65	箱	65	83	70	30	比国	13	2700	2160	13	2376	13	1944	
00	180	箱	2350	11	箱	2484	2376	240	80	比国	10	8100	735	10	2700	10	1296	
00	40	箱	97	11	箱	918	130	80	30	比国	10	8100	1690	10	2484	10	1944	
00	500	箱	—	—	箱	3288	1296	1000	800	比国	10	3808	864	10	1620	10	864	
—	—	箱	4550	2450	箱	4104	2790	4200	2200	比国	10	5400	2160	10	8100	10	2160	